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제주인 연구 서설*

조성윤**

- I. 머리말
- II. 명부에 나오는 제주인들
- III. 이공석의 수기와 윗제섬의 제주인들
- IV. 야프 섬에 갔던 제주인
- V. 맺는말

국문요약

이 글은 오늘날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태평양 지역 섬들에 갔던 제주 사람들에 관한 연구이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론적인 설명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자료를 확보해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론 틀을 세우는 작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쪽에 먼저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로 태평양전쟁 시기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명부를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일본이 남양군도를 지배한 것이 1914년부터 1945년까지였으므로, 1940년대 이후는 마지막 시기이지만, 가장 많은 제주인들이 한꺼번에 이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왜 많은 제주인들이 갈 수 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지냈는지를 추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명부는 물론 최근 강제동원 위원회의 신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 보는 작업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명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거나 뛰어 넘을 수 있는 자료는 자서전(회고록)과 구술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윗제섬에 갔다 온 이공석의 수기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세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그 당시 남양군도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다. 우선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경우는 1934생 고두성씨였다. 그는 현재의 미크로네시아 공화국의 압(Yap) 섬에서 태어나 7살까지 살다가 1941년 부모가 제주도로 귀환하면서 같이 돌아왔다.

이처럼 일제시대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갔던 제주인을 조사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야 하리라 본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의 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다.

주제어 : 남양군도, 미크로네시아, 제주인, 강제동원, 윗제섬, 야프섬.

I. 머리말

그동안 제주도 연구자들의 해외 이동 및 이주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제주인들이 일본에 건너갔고, 일본 땅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착했으며, 2세, 3세로 계승되면서도 지금까지도 제주도 고향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¹⁾ 그밖에도 일제 시기 내내 제주의 해녀들이 부산, 남해

1) 제일 제주인에 관한 서지학적 조사 소개와 연구 방향에 대한 정리는 다음을 볼 것. 高鮮徽, 『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1998 ; 김동진, 「‘在日濟州人’사회의 형성과정과 변천, 그리고 미래: 大阪과 제주간의 상호 교류를 중심으로」,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학술세미나 발표문집, 2005 ; 양성중, 「在日濟州人 研究의 現況: 日本에서의 關聯 文獻·記錄을 중심으로 1920~2004年」, 같은 책, 2005.

안, 동해안, 서해안 일대로 나가서 물질을 했고, 일본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나 중국 대련 지방까지 진출해서 활동했는데, 이에 관한 연구도 나오기 시작했다.²⁾ 해방 후에는 일본, 중국 만주 지역,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나갔던 제주인들이 한꺼번에 귀환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3과 한국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는 다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이주해서, 재미 교포 중에도 제주 출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제주인들은 지난 100년 동안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곳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시 귀환하기도 하였다.

지난 100년 동안의 대규모의 주민 이동은 제주도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제주인들은 엄청난 문화 충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인의 이주와 귀환에 따른 문화 충격 등이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는 본격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제주인들은 언제 어떤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들 중 얼마나 그곳에 정착해 현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는지 이동의 성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이 글에서는 제주인의 이동과 이주에 관련된 장기적인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날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태평양 지역 섬들에 갔던 제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후에 제주도를 떠나 남양군도로 갔던 제주인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할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연구 단계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방향을 마련하려고 한다.

2) 장혜련, 「제주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유목주체」, 『비교한국학』 Vol. 19 No.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II. 명부에 나오는 제주인들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제국 일본은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동원 과정에서, 그리고 소속된 군대에서, 또는 작업장에서 관리를 위해서 작성했던 많은 명부들이 남아 있다. 그밖에 해군 군속 명부를 비롯해서 1945년 전쟁이 끝난 다음 일본을 비롯한 남양 각지에서 귀환할 때 작성했던 승선자 명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전쟁 직후 일본군 대본영의 지시에 따라 많은 자료를 소각, 폐기하는 바람에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아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 자료들 중에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로 명부가 여러 가지 있다. 나는 우선 이 자료들을 제주인이 외부로 동원되었던 상황을 파악하는 일차 자료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명부는 크게 한국 정부가 당시 동원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작성한 명부와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건네 준, 일제 시기 당시에 작성된 명부로 나눌 수 있다. 이 명부들은 2005년부터 시행된 강제동원 진상조사와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들이 실제로 희생자, 강제동원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피해신고 사실 확인 결과서」를 보면 『대일민간청구권자료』, 『구해군 군속 신상조사표』, 등 다양한 명부가 근거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명부들은 그동안 강제동원 연구자들이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가 어려워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제동원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크게 높여 놓았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01년에는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명부를 모아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 컬렉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것은 크게 두 종류의 명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1957~1958년 한국정부가 강제연행 당했던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신고에 의해 기록한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이고, 다른 하나는 1971년부터 1993년에 5차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넘겨준 명부들이다.³⁾ 국가기록원은 이 명부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2001년에 완료하였고, 이것이 연구자들

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미 나와 있는 명부를 활용한 제주도 출신자들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로는 허수열의 논문이 유일하다.⁴⁾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명부 컬렉션의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 출신자들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그는 일제말기 제주도 출신자들의 강제동원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들었다.

먼저 명부 자료에 나오는 제주출신자들의 인원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일반노무자로 동원된 인원수는 제주도가 인구 1천 명 당 10.6명으로 전국 평균 16.2명보다 훨씬 적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군인과 군속으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명단이 포함된 명부에서는 오히려 제주도의 인원수가 전국 평균을 3배 정도 웃돈다.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일반 노무자로서보다는 군인 군속으로 동원된 경우가 훨씬 많았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로 군인, 군속 중에서도 배에서 일하는 해군 사병 및 해군 군속 선원이 다른 지역 출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율이 높다. 이는 동원하는 일제 행정 당국이나 해군 측에서 제주도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도 해상 활동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사망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21,733명 중에서 제주도 출신은 1,023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당시 전국에서 제주도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0.9%임을 감안하면 강제동원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사망률은 현저히 높으며, 강제 동원된 제주출신자가 7,540명이라는 통계를 보면, 강제동원자의 20%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주도 출신들의 사망자 비율이 크게 높다는 것은 일반 노무자가 아닌 군인이나 군속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제주 출신 강제동원자 중에서 사망자를 사망지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사망지가 밝혀진 600여 명 중에서 407명이 남양 방

3) 허수열, 「제주도에 있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8, 238-239쪽, 248-249쪽.

4) 허수열, 위의 논문, 237-264쪽.

면에서 사망하였고, 그 다음이 일본으로 119명, 중국 39명, 국내 다른 지역은 38명뿐이었다. 이렇게 사망자가 남양 방면에 집중된 이유는 역시 1942년 이후 집 중 동원 시기에 미군과의 태평양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이 남양 방면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거의 70%가 남양 방면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가 조선 땅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고, 배를 타고 선원 생활을 한 경험을 가진 남자들이 많았다. 그 때문에, 그들이 전장에 동원되었을 때는 탄광이나 농장 같은 지역으로의 징용이 아니라 해군에 의해서 군속으로 징발되어 각종 선박에서 일을 하고, 병력 및 물자 수송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전쟁 말기에 미군 폭격기나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배가 침몰하면서 바다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제주도 출신 강제동원자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남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당시 조선인들은 ‘남양’과 ‘남양군도’라는 용어가 거의 구별되지 못한 채로 사용되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직도 어딘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당시 일본인들이 사용한 ‘남양’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크게 두 영역이다. 하나는 미크로네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적도 이남의 뉴기니섬(New Guinea)⁵⁾과 티모르(Timor), 솔로몬(Solomon) 제도 등의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넓은 태평양 지역 섬들을 모두 묶은 남태평양 지역을 가리킨다. 또 한편으로는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태국, 버마(오늘날의 미얀마),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부루나이를 포함한 보르네오 섬까지 모두 포괄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남양군도’는 태평양 지역 섬들 중에서 미크로네시아에 해당하는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마셜 제도의 섬들을 가리키므로, 남양 중에서도 아주 적은 지역만이 포함된다. 태평양전쟁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이 남양군도 지역만을 통치 지역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의 넓은 지역까지 모두 지배하고 싶었던 야망이 드러난 것이 태평양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남양지역이라고 할 때는 남태평양 섬들과 동남

5) 멜라네시아에 속하며,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서부 뉴기니와 영역을 분할해서 독일이 지배하던 영역이었다.

아시아 지역을 모두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간략하게 허수열이 분석한 명부에 나타난 제주도 출신자들의 전 시 동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허수열의 논문은 제주도 출신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아왔는지 깊이 분석해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명부라는 자료 자체의 한계일까. 그렇다면 다른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받았는데, 제주지역에서도 신고가 이루어졌고, 제주도위원회가 신고서의 내용을 조사, 검토한 보고서를 묶은 자료집의 일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확정해서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는 제주 지역 신고 자료 중의 일부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짐작하기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자료집은 3-1, 3-2, 3-3 자료집과 사실 확인서 1권을 합쳐 모두 4권이다.⁶⁾

2005년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받았는데, 위원회에서는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명부 컬렉션에 들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하면서, 동시에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했다. 이 자료는 최근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조사되었다는 한계도 있지만, 명부 컬렉션에 들어 있는 기존의 각종 명부들과 비교해보면, 이전 다른 어떤 명부보다도 가장 많은 강제동원자들이 파악되었고, 가장 체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신고조사서는 모두 320명분인데, 이 중에서 남양으

6)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심의자료(3-1)』,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3-2)』,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3-3)』,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 사실 확인서』,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로 동원된 사람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의 탄광 등지에 동원된 사람이 107명, 도내 동원이 64명,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기타 지역으로 동원된 사람이 22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자료는 허수열의 분석과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까운 지역으로의 동원, 즉 제주도내 동원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일본 해군이 알뜨르 비행장을 조성하자, 육군도 제주도에 비행장을 3개나 만들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내내 비행장 건설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동원될 수 있는 노동력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제 징발되었다.⁷⁾ 제주 시 지역은 육군이 정뜨르에 건설하던 서비행장 공사에 많이 동원되었으며, 서귀포지역은 모슬포 알뜨르 지역의 비행장 확장 공사에 많이 동원되었다.

두 번째로는 노무자로 일본의 탄광이나 조선소에도 많이 동원되었고, 만주를 포함한 중국 지역에 파견된 군병들이 조선 다른 지역보다도 비중이 아주 적었다. 1930년대 내내 계속되었던 중일전쟁에는 이른 시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군대의 사병은 대부분 일본인으로 충원되었고, 조선인은 아주 약간의 지원병만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표 1〉 제주지역 강제동원자의 지역별 동원 인원

동원 지역	인원수 (명)	비중 (%)
남양	111	34.7
일본	107	33.4
제주도내	64	20.0
국내	18	5.6
중국	16	5.0

7)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조성윤 외,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도서출판 선인, 2007 ; 조성윤, 「일제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전적지」,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지영임, 「구술을 통해 본 일제하 제주도 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대만	3	0.9
프랑스	1	0.3
합계	320	100.0

출처: 허수열, 『제주도에 있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8.

제주지역 강제동원 위원회의 신고 자료의 320명 중에서 남양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111명으로 34.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들의 동원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신고자가 신고서의 동원 지역을 적는 난에 기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그런데 <표 2>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남양군도뿐만 아니라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 지역을 포함한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그만큼 전장(戰場)이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지역은 동남아시아였으며, 그 중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도 버마(현재의 미얀마), 보르네오, 싱가포르, 불인(佛印)까지 다양하다. 불인(佛印)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인데, 현재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지역이다.

남양군도 지역은 남양청(南洋廳)이 있었던 팔라우와 미국령 괌, 그리고 사이판, 티니안을 포함한 마리아나제도에 모두 제주 출신이 동원되었다. 축(Chuuk)섬은 일본 해군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으로 전쟁 기간 내내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백 척이 넘는 많은 함정들이 정박해 있던 요충지였다.

기타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정확한 사망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동원지가 아닌 해상에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상, 또는 해역이란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이동하다가 항공기나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기 때문에 어느 바다에서 침몰해 죽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해군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태평양 전쟁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은 미군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길버트 제도와 솔로몬 제도였고, 그 다음으로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제도였다. 일본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팔라우와 마리아나 제도는 전장이라기보다는 배후지역으로 여겨졌다.

〈표 2〉 제주지역 동원자들의 동원지 중 남양의 분류

지역	섬, 국가	인원	세부 분류
남양군도 (27)	팔라우	2	페틸리우섬1, 파라오섬1
	팜	2	팜섬 2
	사이판	3	사이판3
	티니안	1	티니안섬 1
	촉	4	트럭섬1, 동카로린제도트럭섬1, 도락쿠1, 도라쓰구섬1
	미레	2	미레섬 2
	윗제	12	마셜군도 윗제섬 12, 우오쓰제섬1
	남양군도	1	남양군도 1
남태평양 (23)	동부뉴기니	14	동부뉴기니섬 14
	타라와	7	길버트 타라와섬 7
	솔로몬 군도	2	솔로몬 군도 2
동남아시아 (31)	필리핀	23	루손섬, 네그로스섬, 다바오섬, 민다나오섬, 필리핀수용소, 필리핀 해상, 필리핀근해, 필리핀해역, 필리핀해역침몰구조
	보르네오	2	보르네오 섬 2
	싱가폴	3	싱가폴 3
	불인(佛印)	1	불인방면1
	버마	2	버마 2
기타(30)		25	태평양2, 태평양해안1, 서태평양2, 남태평양 방면 1, 남태평양 해상1, 중국해 동방해면1, 도서북방해면2, 남지나해1, 다이구 팜팜섬1, 타이한도1, 오가사하라제도1, 어느섬7, 외남양1, 포 로수용소 근무1, 구구도1, 기타5

출전: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3-1)(3-2)(3-3)』,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남태평양 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 위쪽에 자리 잡은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군도, 그리고 길버트(Gilbert) 제도의 타라와(Tarawa)가 있는데, 이 지역은 모두 일본군과 미군이 격전을 벌였던 전장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동부 뉴기니는 파괴되었던 일본군의 90% 이상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무모한 작전 계획을 실행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려 밀림 속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타라와 섬 역시 마킨섬과 함께 남양군도보다 좀 더 멀리 나간 길버트 제도에 있는 섬으로, 미군이 남양군도로 진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작전상의 요충지였다. 이 지역에 비행장을 건설한 것은 제101 해군 설영대였는데, 이 부대 구성

8) 藤原彰, 『餓死した英霊たち』, 青木書店, 2001.

원의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그런데 이 타라와에 제주도 출신도 다수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III. 이공석의 수기와 윗제섬의 제주인들

앞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는 명부를 통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언제 어떤 지역으로 동원되어 끌려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추세일 뿐이다. 그들이 동원되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고, 전장에서 어떤 시련을 겪었고, 또 어떻게 죽거나 살아 돌아왔는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물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직접 매일 매일 일기를 쓴 것이 남아 있다면, 가장 좋은 자료일 것이다. 동원된 사람들 대다수가 교육 수준이 낮고,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비행장 건설을 비롯해서 참호구축 등에 동원되어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수첩과 펜 등의 필기도구를 구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했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그들이 겪었던 경험담을 회고록이나 구술사 증언을 통해서 남긴 경우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회고록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나중이라도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직접 기록을 남긴 경우이고, 구술사는 연구자가 생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작성한 녹취록을 통해서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다.

최근까지 알려진 남양군도 지방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회고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전쟁이 끝난 후 티니안 섬에서 생활했던 전경운이 1981년 작성한 회고록과 마셜군도 밀리환초(Mili Atoll)에 동원되었던 경험을 기록한 이인신의 회고록, 그리고 마셜군도 윗제섬에 동원되었던 경험을 기

9) 마킨섬과 타라와섬에서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죽음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권주혁, 『헨더슨 비행장』, 지식산업사, 2001 ; 권주혁, 『베시오 비행장』, 지식산업사, 2005 ; 권주혁, 『나잡비행장』, 지식산업사, 2009.

록한 이공석의 회고록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제주도 출신 이공석의 회고록이다.¹⁰⁾

전경운이 작성한 회고록은 「第一回 南洋사리 四十年-日帝時代記」와 「第二話 原住民 歸化時代」, 그리고 『韓族 2세3세가 天仁安島에 살고 있는 혼혈아들』의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화에는 전경운이 1938년 남양무역(南洋貿易)에 회사원으로 취직해서 사이판을 비롯한 마리아나 제도 여러 섬의 야자수 농장에서 감독으로 일했던 경험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제2화는 종전 직후 1년 정도의 수용소 생활과 그 이후 괌과 티니안에서의 생활 경험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1995년도 회고록은 1980년대 회고록에서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적은 것이다. 이 기록은 조선인이 현지 주민인 차모로 여인과 결혼하면서 전쟁 후에 그대로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경우를 잘 보여준다.

이인신의 회고록은 마셜군도 밀리환초(Mili Atoll)에 동원되었던 경험을 기록하였다. 1942년에 해군 군속으로 동원된 그는 배를 타고 마셜군도 밀리 환초에배치되어 비행장 활주로와 각 포대 시설을 비롯한 각종 전투 준비를 위한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러나 전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미군은 밀리 환초에 상륙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보급이 끊긴 섬에서는 일본군과 군속 모두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고, 나중에는 죽은 시신의 인육을 먹었고, 다시 인육을 먹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생지옥과 같은 상황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인이 살해당해 인육으로 변한 것을 알게 된 조선인 군속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대량 학살당한 사건도 일어났다. 이인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사실은 일차 강제동원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이인신의 회고록과 함께 「구해군 군속신상조사표」에 나오는 사망자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한 단계 진전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¹¹⁾ 그런데 작년에는 김득중이 이인신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이인신은

10) 전경운, 『南洋살이 四十年을 回顧(全慶運氏 自敘傳)』, 미간행 프린트물, 1981 ; 전경운, 『韓族 2세3세가 天仁安島에 살고 있는 혼혈아들』 미간행 프린트물, 1995 ; 李仁申, 『일제강제연행 태평양전쟁 마셜군도 미레島 수난기』 미간행 프린트물, 1995 ; 이공석, 『역사의 뒤안길에서-마셜군도 윗제섬에서의 구사일생』, 제주, 도서출판 열림문화, 2001.

1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남양군도 밀리환초(Mili Atoll)에서 학살

현장에 없었고, 반란 경험자인 박종원의 말을 옮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접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밀리 환초 관련 사료를 찾아와 대조해 설명해주고 있다. 이 자료는 이인신의 자료의 부족한 점을 잘 메워주는데, 당시 미군 함정으로 탈출한 조선인들의 사진 등 여러 자료를 소개해 주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자료가 서로 보완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밀리 환초에 관한 사실이 확연히 보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¹²⁾

마지막으로 검토할 이공석의 수기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인데, 제주도에서 마셜제도 윗제 환초(Wotje Atoll)까지 갔다 온 이야기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1942년 5월에 해군 군속 모집 공고가 났다고 한다. 신체검사와 구술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했는데, 제주에서는 모두 58명이 합격했다. 이들의 소속은 일본 요코스카 제4 해군사령부 시설부대이다. 전국 다른 지역에서 모집한 2천 명에 끼어 남방으로 갔는데, 배는 트럭 섬과 마셜군도 말로에랩 환초(Maloelap Atoll)를 거쳐 윗제 환초에서 모두 600명이 내렸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비행장 활주로와 수조탱크, 진지, 방공호를 만드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었다. 약 1년가량 공사를 진행시켜 거의 모든 시설이 완공될 때쯤부터 미군 전투 비행기의 기습 공격과 폭격기의 폭격이 시작되었고, 1944년이 되면 지상의 모든 시설물은 파괴되었다. 하지만 미군은 윗제섬에 상륙하지 않고, 단지 고립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뒤 사병들과 군속들은 식량이 떨어져 풀죽으로 연명하면서 수류탄으로 물고기를 잡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섬들로 채집 활동을 하면서 지냈다. 그들은 1945년 이후부터는 농업 반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섬으로 분산해서 식량을 생산하려고 움직였다. 이공석은 이 시기의 생활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다. 처음 배를 타고 가면서 야자수가 즐비한 섬을 보면서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던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 상관들의 모욕적인 언사와 구타, 그리고 굶어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던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풍부하다.

된 강제동원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 동위원회, 2001.

12) 김득중, 『일제시기 밀리 환초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반란 사건』, 『역사의 창』 통권 39호, 국사편찬위원회, 2014.

이공석의 수기에서 주목할 점 가운데 하나는 인육설이다. 밀리 환초에서와 같이 윗제 환초에서도 동료 사병을 죽여 인육을 먹는 일이 벌어졌다. 다만 밀리 환초와는 달리 발견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총살시켜 사태를 종결시킨 것이 다른 점이었다.¹³⁾ 밀리환초와 윗제 환초를 통해서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기아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같은 부대의 조선인을 살육해서 고기를 말렸다가 나누어 먹은 사건이 공통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쟁 말기의 병사들이 처했던 위기 상황이 반드시 미군과의 전투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이공석이 제주도에서 함께 출발한 동료들이 모두 58명이라고 하였고, 윗제섬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26명이 제주로 귀환했다고 하였고, 제주도 내의 읍면별로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제주지역 강제동원 위원회의 신고 자료와 대조해 보았다.

2005년에 작성된 신고서에는 대부분 근거를 밝히는 난에 이공석의 저서를 적어 넣고 있다. 보기를 들어보자. 접수번호가 북제주군-401인 1918년생 송재길은 그 아들이 제출한 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적었다.

상기 피해자는 일제군속 징발계획에 의거 1942년 6월 3일 제주를 출발하여 1942년 6월 7일 부산항을 경유, 남태평양 마셜 군도 윗제도 전선에 투입되어 일본 요코스카 제4 해군사령부 시설부대 소속으로 노역 중 공습에 의해 1944년 9월 5일 현지에서 전사한 사실임. 신고서의 사망일과 제적상의 사망일이 틀린 이유는 그 때 그 당시에는 언제 사망하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나중에야 보증인(이공석)이 알려주어서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으며...¹⁴⁾

송재길의 경우는 동원 현지에서 공습 때 사망한 것을 이공석이 가족에게 알려주었다.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준 것을 보면, 이공석이 사망 당

13) 이공석, 위의 책, 112-116쪽.

14)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3-3)』,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62쪽.

시의 상황을 미리 날짜와 함께 기록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접수번호 북제주군-341호인 김봉추는 이공석과 함께 살아 돌아온 경우인데, 그는 해군 군속으로 징용되어 남양군도에 다녀왔다는 점만을 밝혔을 뿐, 정확한 지명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증인 이공석이 윗제섬에 같이 갔다 돌아왔음을 보증하고 있다. 이공석은 정확한 학력을 알 수는 없지만, 가기 직전까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서,¹⁵⁾ 윗제섬에 동원되었던 제주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식인이 남긴 기록이 현재로서는 이 자서전 밖에 없다. 앞으로 이 자서전과 신고서를 대조해가면서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윗제섬에서의 제주인의 생활과 경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야프 섬에 갔던 제주인

위에서 살펴본 강제동원자 명부와 이공석의 수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모두 태평양전쟁이 터진 이후에 남양군도에 갔던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독일 영토였던 미크로네시아 섬들을 점령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1914년이었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청나라로부터 대만을 빼앗아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1910년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어서 4년 뒤에 남양군도를 세 번째로 식민지로 만든 것이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일본은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남양군도를 점령한 직후부터 경제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일본인들을 이주시키려고 노력했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에 걸쳐 일본 언론에서는 인구과잉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일본인들을 식민지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이미 일본은 하층민들을 하와이,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이민을 보냈다. 따라서 남양군도로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은 식민

15) 이공석, 위의 책.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20년대였다. 사이판과 티니안을 중심으로 사탕수수 산업이 성공을 거두자, 일본으로부터 이주하는 인구도 급증했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현지 주민이 5만여 명이었는데, 이 보다 더 많은 일본인이 남양군도에서 살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마리아나 제도와 팔라우에 집중적으로 이주했지만, 점차 캐롤라인 제도의 야프(Yap), 트루크(Truuk), 쿠사이(Kusai) 같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선인들도 일본인들과 함께 남양군도에 돈을 벌기 위해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점이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런트로 유명한 고두심씨의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런데 기사 중에 갑자기 남양군도 이야기가 나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제주도 부잣집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고명려)는 자수성가했다. 10대에 가출해 일본과 남양군도 압섬을 오가며 무역을 했다. 일본에서 생필품을 사 와서 섬에 팔고 원주민 생산품을 열도에 판매했다. 돈벌이가 좋아 압섬에서 병원과 대형 마트까지 경영했다.

“어머니(홍정의)는 글을 몰랐는데도 아버지보다 더 원주민 말을 잘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일본에 가면 어머니는 그림으로 장부를 작성했는데 다 알아 보셨다네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는 제주도로 오셨죠. 그동안 모은 돈을 배개에 집어넣어 배 밑창에 숨겨왔대요. 큰 기와집과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셨죠. 무전여행 온 대학생들 사이에 '남양 집에 가면 밥 준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로 인심이 좋았어요.”¹⁶⁾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다른 기사도 나왔다.

바다에 옥죄어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 한 뼘의 논도 없는 제주에서 가난이 싫었던 이들은 늘 물을 동경했고 제주를 떠나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열네 살 되던 해에 현해탄을 넘으셨다. 당시 제주를 떠나려던 이들은 거의가 일본행이었다. …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달랐다. 개척할 만한 광활한 서부도 없었고

16) 「[매경이 만난 사람] 데뷔 42주년 맞은 국민배우 고두심」, 『매일경제신문』 2014년 6월 30일.

아버지를 맞이할 그 무엇도 없었다. 고향으로 되돌아설 수도 없었던 형편이라 아버지는 남태평양 사이판 서남쪽 부근 ‘얍’이라는 미개척 섬에 보따리를 풀어야 했다.

그 작은 섬에서 보낸 10년의 세월동안 일본과 얍을 오가며 보따리장사 같은 물물교역 수준의 무역업을 시작했던 아버지는 다행히 병원과 만물상점을 경영하는 젊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 현지 여자나 일본여자들과의 혼인제가 있을 법도 했으나 아버지는 거절로 일관했다. 아버지는 오로지 자신의 뿌리이며 고향인 제주여자를 고집했다. 왕래가 쉽지 않던 형편인데도 제주까지 건너와 어머니를 신부로 맞아 다시 얍섬으로 향했다.¹⁷⁾

두 기사는 모두 고두심의 증언이었다. 기사를 읽고, 고두심씨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먼저 만난 사람이 고두심씨의 큰오빠 고두성(高斗星)씨였다. 그는 1934년생으로 얍 섬에서 태어나, 7살 때까지 살다가 1940년에 가족과 함께 제주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군도에서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고두성과 인터뷰를 마친 다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두성씨 형제와 고두심씨 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두성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는 동시에 가족들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고두성씨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고명러는 1902년생으로 1920년대 초에 돈을 벌기 위해 떠나는 제주도 사람들과 함께 집을 떠나 일본으로 갔다.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남양군도로 일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사이판에 가서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얍섬으로 이동해 갔다. 다른 조선 사람들은 대개 사이판이나 티니안, 아니면 팔라우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는 얍 섬으로 갔다는 점이 특이했다. 앞으로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얍 섬으로 가게 된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

그는 그곳에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했다. 그는 원주민들로부터 코프라(Copra)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코프라는 야자열매 안에 있는 하얀 부분을 가리키는데, 화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이용된

17) 「나의 삶, 나의생각(텔런트 고두심의 어머님 생각)」, 『매일경제신문』 2009년 9월 12일.

다고 한다. 코프라 수집이야말로 당시에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일이었다. 코프라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일은 이미 1860년대부터 독일인들이 시작했다. 마셜제도에서는 코프라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독일인 2명이 아예 원주민들로부터 섬을 사들여 야자수 농장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야자수를 식재한 경우도 있었다.¹⁸⁾

다른 섬에서의 코프라 수집은 보통 야자를 벗겨 나온 하얀 부분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저장했다가 실어 날랐다. 그러나 그는 원주민들이 야자열매를 따서 갖고 오면, 두꺼운 껍데기 부분을 모두 벗겨서 수박처럼 매끈하게 만들어, 그것을 그대로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와 계약을 한 일본인 사업자가 이를 받아 처리했다고 한다.

아버지 고명러는 10년 후인 1930년대 초에 제주도에서 돌아와 부인 홍정의를 데리고 다시 압섬으로 돌아갔다. 부인과 함께 생활하게 된 다음부터는 주로 부인이 점방에 앉아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고, 고두성씨는 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야자열매를 수집하는 일을 했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난 뒤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압섬에 병원을 개설한 일과 요리점을 개설한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상점은 거의 부인 홍정이가 맡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그리 흔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면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발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의 일 중에 고두성씨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버지가 가끔 몰래 원주민들에게 술을 주던 일이었다. 아버지는 원주민 친구가 많았다. 그들에게 판매용으로 들어온 술을 선물하면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일본인은 상관이 없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 규정

18) 독일 무역상인 카펠과 카펠 무역상사의 동료 데브럼이 1877년에 리키엵 환초를 사들였다. 그들은 마이크로네시아 전역에서 코프라와 해산물을 거래하고 있었다. 데브럼과 카펠은 대단위 코코넛 농장을 만들고, 마셜 제도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섬에서 살았다. 500여명에 이르는 그들의 후손이 아직 이곳에 살고 있다. 『리키엵 환초, 마이크로네시아의 마셜 제도』, 제니스 프롤리홀러, 『세상의 모든 섬들이 내게 가르쳐 준 지혜』, 노혜숙 옮김, 도서출판 크림슨, 2003, 109-110쪽.

은 국제연맹이 일본에게 남양군도 지역 신탁통치를 승인하면서 제시했던 것이므로, 일본 정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런데 가게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압 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술을 판매하고 있었다. 술을 선물로 받은 원주민들은 그 보답으로 바나나는 물론, 귤, 망고 등 과일을 잔뜩 가져왔다고 한다. 그들은 아마 코프라를 수집하는 일에도 협력했을 것이다.

부인과 함께 압섬으로 돌아올 때, 그를 따라온 화북 마을 친구들도 3~4명 있었다고 한다. 고두성 가족은 바닷가 변화한 마을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멀리 떨어진 시골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지냈다. 그분들도 전쟁이 끝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 그 분들도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이미 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고두성은 일본 어린이들과 함께 유치원에 다녔다. 물론 일본인 어린이들과도 같이 놀았다. 하지만 때때로 마을의 원주민 어린이들과 노는 날도 많았다. 원주민들은 다정한 친구는 ‘콤파니’라고 했다. 원주민은 물론 일본인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자주 바닷가로 나갔다. 물고기가 아주 흔했다. 일본인들은 거북이를 많이 잡았는데, 거북이 고기를 좋아했다. 바다에 나가면 쉽게 잡아 왔다. 거북이는 칼에 찢려도 일주일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한다. 옆집에 사는 일본인은 거북이를 잡아오면 밤새 구워 먹었다. 그들이 마당이 불을 피우고 거북이를 잡아 구워 먹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일은 독일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독일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두성의 기억에 독일 사람들이 정치가 좋은 곳에 잘 지은 주택에 살았다. 독일 사람들은 숨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어머니 흥정의가 독일 사람과 친해서 은으로 된 거울을 받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1914년 일본이 독일 영토였던 남양군도를 지배하게 된 것을 반대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이 남양군도를 일본에 넘기는 것을 반대한 표면상의 이유는 압 섬이 독일이 깔아 놓은 해저 통신 케이블 중계지였기 때문이었다.¹⁹⁾ 그런데 그들이 일본의 지배 하에서 여전히 압 섬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들이 숨어 살았다고 표현한 고두성

의 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두성 가족들은 고명려가 환갑을 맞이했을 무렵에 압 섬에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녹음기에 담았고, 갖고 돌아온 사진들을 묶어 사진첩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녹음을 해놓은 테이프도 보이지 않고, 사진첩도 누군가가 빌려가서 가져오지 않아 지금은 남은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경영하는 상점 앞에서 부부가 찍은 사진 두 장이 흥미롭다. <사진 1>을 보면 1934년생인 고두성이 갓난아기로 나온다. 따라서 1934년이거나 1935년의 사진이라고 생각된다. <사진 2>에서는 고두성이 5~6살, 둘째인 동생이 돌을 지난 나이로 보이므로 1939년이나 1940년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두성 가족의 생활은 상점을 주 무대로 삼아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현 단계에서는 아직 어렵다. 앞으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완하거나 현장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압 섬에서 생활했던 일본인들이 남긴 기록과 사진을 찾아서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점포와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압 섬에서 생활했던 일본인들의 생활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관련 논문이나 자료집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인에 관한 자료에 비하면 훨씬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9) 미국의 반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기사를 참고할 것. 「미국이 화가 치미는 것: 군사, 경제 양쪽 면으로부터 본 압섬의 가치(米國が業を煮やす譯: 軍事、經濟兩方面から觀たヤップ島の価値)」, 『東京日日新聞』 1921(大正10)年 4月 24日.

〈사진1〉 야프섬의 고두성 가족(1934년경)



〈사진2〉 야프섬의 고두성 가족 (1939년경)



고두성 가족은 1941년에 제주도로 돌아왔다고 한다. 1941년이 되자, 점차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다. 그 당시 돌아올 때의 사정은 고두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본인이 아버지에게 곧 대동아전쟁이 터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다. 그래서 섬에서는 자급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네, 농사를 지을만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사람들을 모집해 오라고 했고, 아버지는 가족을 고향에 데려다 주고, 일할 사람들을 인솔해 돌아오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배를 탔다. 그런데 가족이 제주도에 돌아오자마자 전쟁이 터졌고, 아버지도 그 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올 때는 모은 돈을 배가에 집어넣어 숨긴 채 돌아왔고, 그 돈으로 기와집과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이상 간략히 정리한 고두성 가족의 압 생활을 볼 때, 고두성의 아버지 고명려는 일본에 일하러 갔다가 사업 기회를 찾아 야프 섬으로 이주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업가였다. 이 케이스는 전쟁 이후에 강제 동원되었던 경우와는 달리 스스로 남양군도로 가서 사업을 벌이면서 성공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만약에 그 가족이 전쟁이 터진 194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압 섬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는 함부로 상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명려는 영리하게도 그동안 번 돈을 챙기고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돌아왔다.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 물론 쉽지 않은 사례이지만,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고명려의 경우 말고도 더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 과제라고 보고 싶다.

V. 맺는말

이 글은 오늘날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태평양 지역 섬들에 갔던 제주 사람들에 관한 연구이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론적인

설명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자료를 확보해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론 틀을 세우는 작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쪽에 먼저 중점을 두었다. 조선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후에 제주도를 떠나 남양군도로 갔던 제주인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자료는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태평양전쟁 시기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명부를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일본이 남양군도를 지배한 것이 1914년부터 1945년까지였으므로, 1940년대 이후는 마지막 시기이지만, 가장 많은 제주인들이 한꺼번에 이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왜 많은 제주인들이 갈 수 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지냈는지를 추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는 사이판, 팔라우 등 남양군도뿐만 아니라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들(예를 들면 뉴기니 섬, 솔로몬 제도, 길버트 제도)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까지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전쟁 기간 동안 동원된 제주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어떤 경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귀환한 사람들은 미군에 의해서 어떤 곳에 수용되어 있다가 어떤 식으로 돌아왔는지 아직 우리는 연구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명부는 물론 최근 강제동원 위원회의 신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 보는 작업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명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거나 뛰어 넘을 수 있는 자료는 자서전(회고록)과 구술 자료라고 생각된다. 자서전은 그 당시를 경험한 사람이 직접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것인 반면, 구술 자료는 연구자가 그 당시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를 녹취록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윗세대에 갔다 온 이공석의 수기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세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그 당시 남양군도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다. 우선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경우는 1934생 고두성씨였다. 그는 현재의 미크

로네시아 공화국의 얍(Yap) 섬에서 태어나 7살까지 살다가 1941년 부모가 제주도로 귀환하면서 같이 돌아왔다. 고두성의 아버지 고명려는 일본에 일하러 갔다가 사업 기회를 찾아 야프 섬으로 이주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업가였다. 이 케이스는 전쟁 이후에 강제 동원되었던 경우와는 달리 스스로 남양군도로 가서 사업을 벌이면서 성공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일제시대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갔던 제주인을 조사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야 하리라 본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의 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다.

참고문헌

- 高鮮徽, 『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1998.
- 권문상 외,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4.
- 김동진, 「‘在日濟州人’ 사회의 형성과정과 변천, 그리고 미래: 大阪과 제주간의 상호 교류를 중심으로」,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학술세미나 발표문집, 2005.
- 김득중, 「일제시기 밀리환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반란 사건」, 『역사의 창』 통권 39호, 국사편찬위원회, 2014.
- 김명환, 「1943~1944년 팔라우(Palau)지역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조선인 노무자 관계절』 분석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4집, 한일민족문제학회, 2008.
- 김명환, 「조선인 이주, 강제동원 역사의 연구: 植民地時期 朝鮮人の南洋群島移住實態(1914~1938)」, 『한일민족문제연구』 16집, 한일민족문제학회, 2009.
- 김명환, 『남양군도 지역 한인 노무자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1939~194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2009.
- 김명환, 「일제말기 조선인의 남양군도 이주와 그 성격(1939~1941)」,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64집,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10.
- 김명환, 「日帝末期 南洋拓殖株式會社の 朝鮮人 動員實態」, 『한일민족문제연구』 18집, 한일민족문제학회, 2010.
- 김명환, 「1944년 남양청 동원 조선인노무자 피해실태 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2012).
- 양성중, 「在日濟州人 研究의 現況: 日本에서의 關聯 文獻·記錄을 중심으로/ 1920~2004年」,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학술세미나 발표문집, 2005.
- 윤덕영, 「2006년도 8·15광복기념 사료발굴 재론-남양군도에서 광복 직후 귀환한 11,000여 명의 승선자 명단」, 『역사의 창』 권3, 국사편찬위원회, 2006.
- 이공석, 『역사의 뒤안길에서-마살군도 윗제섬에서의 구사일생』, 제주, 도서출판 열림문화, 2001.
- 李仁申, 『일제강제연행 태평양전쟁 마살군도 미레島 수난기』, 미간행 프린트본, 199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편, 『남방기행-강제동원 군속수기집』, 동위원회, 2008. 9~72쪽에 다시 실림.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남양군도 지역 한인노무자 강제동원

- 실태에 관한 조사(1939~1941)』, 2009.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남양군도 밀리환초(Mili Atoll)에서 학살된 강제동원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 2011.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1944년도 남양청 동원 조선인노무자 피해실태조사』, 2012.
- 장혜련, 『제주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유목주체』, 『비교한국학』 Vol. 19 No.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 전경운, 『南洋살이 四十年을 回顧(全慶運氏 自敘傳)』, 미간행 프린트물, 1981.
- 전경운, 『韓族 2세 3세가 天仁安島에 살고 있는 혼혈아들』, 미간행 프린트물, 1995.
- 정혜경 외, 『강제동원을 말 한다 -명부편(1) 이름만 남은 절규』, 도서출판 선인, 2011.
-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3-1)』,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3-2)』,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자료(3-3)』,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편, 『제4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 사실 확인서』, 동위원회, 미간행 프린트물, 2005.
- 조성윤 외,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도서출판 선인, 2007.
- 조성윤, 『일제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전적지』,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지영입, 『구술을 통해 본 일제하 제주도 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허수열, 『제주도에 있어서 조선인 강제동원』,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8.
- 藤原彰, 『餓死した英靈たち』, 青木書店, 2001.
- 竹内康人, 『調査·朝鮮人強制労働③ 発電工事·軍事基地編』, 社會評論社, 2014.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f the Migration and Repatriation of the Jeju People at the Micronesia Region of the Japanese Empire*

Cho, Sung-Youn**

This paper aims at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migration and repatriation of the Jeju People at the Micronesia region of the Japanese Empire. I want to explore the possibility how to collect data that relate to the migration and repatriation of the Jeju People, instead of the set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First of all, I think the record books on the list of the people that were involved in World War II when force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material. National Archives of the list is, of course, I think you have to see this work out to these issues through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notification of Forced Mobilization Committee recently one of the important work to do in the future.

Second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record books on the list of the people, We can use the autobiography (memoirs) and oral data.

Lastly, We must explore the people that have experience had been to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14 scientific promotion program funded by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go to the Micronesia region of the Japanese Empire. If not, we can contact with the their families.

Keywords : South See Islands, Micronesia, Jeju People, Forced Mobilization

교신 : 조성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E-mail: chomin999@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 01. 14.

심사완료일 2015. 01. 26.

게재확정일 2015. 01. 28.